

## 다산포럼

## 이 봄, 꽃들이 떨어진다



유지나

동국대 교수

8일 오후 4시, 꽃샘추위 속에서도 강렬한 불볕이 실내로 들어온다. 놀라운 것은, 지난 달 편 꽃 한송이였다. 죽은 것처럼 말라버린 작은 나무지만 수년간 물을 주고 햇볕 따라 옮기며 둘렀더니 8년 만에 꽃이 피었다.

화사한 분홍빛과 붉은빛이 섞인 꽃을 보노라면 시름시를 앓던 생명이 살아나는 작은 기적처럼 보인다. 늦게나마 식물과 함께 사는 공생의 묘미에 재미 붙여가며 사랑을 표하는 기술을 배운 것만 같다.

매일 아침 화사한 꽃 한송이를 바라보면서 '회생'(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이란 영화의 도입부가 떠오른다. 노인이 어린 아들에게 양상한 나무에 매일 물을 주며 선승

의 지혜를 들려준다. 제자에게 언덕 위 마른 나무에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고승의 이야기는 생명을 살리는 돌봄의 기술을 가르쳐준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라 화사한 꽃더미 이미지가 문자로 날아온다. 제자가 보내준 따뜻한 마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온갖 꽃들이 떨어지는 우울한 소식에 적막해진다. 생활고에 친 도시 한 구석, 세모녀의 죽음에 이어 떨어지는 꽃봉오리들의 아찔한 소식이 매일 동시에 연달아 다가온다.

짝짓기 경쟁 프로그램 같은 리얼리티 방송에 출연한 한 여성 꽃이 떨어진다. 고달픈 삶의 현장을 지키며 노동인권을 위해 살아왔던 여성 꽃이 떨어진다.

그런데 신문기사에선 그 이유를 개인사와 우울증이라고 진단한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개인사와 사회사는 분리된다는 뜻일까? 여성이 건 남성이나,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개인사와 사회사는 꾀어우러져 럼 하나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던가?

온갖 매체가 자살률 증가를 크게 걱정하

며 원인과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0년 폐낸 '여성 자살 현황 및 정책 방향' 보고서는 오히려 가족문제가 자살과 연관된 것을 보여준다.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여성이 24.6%로 남성 7.8%에 비해 월씬 높게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삶에 더욱 회의적인 여려 지표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성별 격차에 대해 "여성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해석도 나온다.

가족이 인생의 고단함과 기쁨을 기댈 마지막 보루인 양 인식하는 가족관은 공공 복지제도와 사회공동체로 연결되는 맘을 차단 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존속 살인이 유독 증가하는 것도 위험한 경보이다.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의 죽음이 이어지는데도 경제난과 더불어 가족붕괴를 자살증가 원인으로 진단하는 것은 이을 반칙이다.

세계적인 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마침내 언론에 나도는 '동반자살'이라

표현을 보다 못해 그런 표현의 자제를 요청했다.

"너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도, 소유물도 아니다. 부모의 처지가 아무리 절망스럽다 해도 부모가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적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뒤틀린 가족문화의 반인권적 면모를 드러낸다.

오래전 경농시대 혈연중심 대가족 전통을 가족관으로 내려받아 가족과 가정을 최후의 보루인 양 칭송하지만, 그런 가족관은 복지 사회로 가는 대안적인 돌봄의 공동체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지난 20년간 3배 늘었다. 특히 노인과 여성자살률 증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심하다.

치열한 경쟁 시스템과 더욱 벌어지는 자본 양극화문제 속에서 전통적 가족관의 복원은 변화된 세상 속에서 불가능하다. 시들어가는 식물도 물과 빛이 있으면 살아나듯이, 사회적 공공복지와 대안 가족적 공동체를 꽂고 피우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피어나는 변화와 실천이 봄과 함께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 NGO 칼럼

## 구멍 뚫린 복지사각지대, 시민들 관심·참여 더 필요하다



장형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본부 나눔사업팀장

불경기에는 '매운 음식'이 잘 팔린다고 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이 많아지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매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캡사이신성분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기 때문이다. 요새는 참·매운 맛이 확 당기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자살사건을 시작으로 마치 감염균이 확산되기도 하듯 경기도 등두천과 광주 등에서도 일가족이 등반자살해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생계형 자살'의 확대. 이는 단순히

'베르테르 효과'로만 치부하기엔 마음 한 구석이 좀 꿈꿨다. 오히려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사각지대의 현실과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 지금은 100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복지'라는 이름하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안전망이 상실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쟁기는 '공동체적 사고와 행동'이 없다면 단순한 예산부풀리기와 이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순천에도 '순천 뇌사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송모군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고 귀가 후 태권도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송군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과도한 체벌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체벌과 뇌사의 연관성에 관한 피해자와 학교간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

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안타까운 송군의 사연이 있었다. 쓰러진 송군은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한부모가 정의 가정이었다. 송군의 어머니는 몇 해 전 남편과 이별한 후 조그마한 식당에서 일을 하며 송군과 남동생을 흘로 키워왔다. 어려운 가정현관과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어머니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 남동생을 쟁기는 의젓한 송군 덕분이었다고 한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채 누워있는 것이다. 갑작스런 아들의 사고로 어머니는 신경쇠약을 호소하며 음식물 섭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송군이 병원에 입원하며 들어간 치료비는 2000만원에 유탁하며 이 중 본인부담금도 6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송군의 상태에 따라 얼마의 병원비가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어머니는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 다니던 식당 일도 그만둔 상황으로, 치료비는 물론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이 구멍이 뚫린 복지사각지대의 사각을 눈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나 그보다 앞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 도움의 손길을 질질히 기다리고 있는 주변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아닐까.

'천상박여일행', 한 가지 행동이 천 가지 생각보다 낫다는 의미이다. 컴퓨터에 앉아 타자기를 두드리며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보는 것. '실천하는 어른, 행동하는 어른' 그것이 결국 사회를 조금 더 희망차게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황으로, 치료비는 물론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송군의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누구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돋기 위한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이 구멍이 뚫린 복지사각지대의 사각을 눈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나 그보다 앞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 도움의 손길을 질질히 기다리고 있는 주변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아닐까.

그것이 결국 사회를 조금 더 희망차게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 기고

## 전남 서남부권 생명수 공급원 장흥댐 재조명



위창환

전장흥읍장

겨울 가뭄이 초보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엔 흡족한 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 전남 남부에 내린 비의 양은 고작 5mm 수준으로 가뭄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지난해 남부지방에는 여름 미온장마를 거쳐 태풍 없는 한 해를 기록하더니, 올 겨울 들어서는 강우량이 예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겨울 가뭄으로 전남지역 다목적 댐의 저수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전남 서남권 도서지역과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제한급수와 비상급수가 시작됐

다. 극심한 가뭄이 현실화된다면 식수부족과 영농피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 예년에 비해 높은 기온과 강수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물부족사태에 대비한 자발적인 절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뭄에 있어 댐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상 기후에 대비해 자연재해를 막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 생활향상을 위해 2006년도에 준공된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에 위치한 장흥댐은 총 저수용량 1억 9000만m<sup>3</sup>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이 댐은 흥수조절은 물론 전남서남부지역 복포, 장흥, 강진 등 9개 시군지역의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소하는 생명수이다. 젖줄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댐 설립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댐 운영 수의의 상당부분을 매년 댐 주변지역에 원수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K-water 전남 서남권관리단에 따르면 이

달 현재 장흥댐의 저수율은 35%로써 전년도에 다소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장흥댐의 용수공급 가능일 수는 현 공급량 기준으로 230여 일까지 가능하다. 생·공용수를 비롯한 하천유지용수와 봄철 영농기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새롭 장흥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한다.

장흥댐은 재작년 봄가을 시에도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수수도를 활용하여 가뭄해갈을 위해 저수율이 심각한 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농업용수공급을 긴급 지원하는 등 주변지역 가뭄극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장흥댐은 낮은 저수율과 강우에도 수질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 서남권의 중요 식수원인 만큼 수질 이상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는 저수지 수질 상황관리와 완도, 신안, 진도 등 도서지역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전천후체계는 주민 건강을 지키며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을 보면 조여름까지 가볼다가 폭우가 바로 이어지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장흥다목적댐은 매년 가뭄기간이 지난 후 흥수기 도래시에도 흥수조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 안전 및 하류하천 흥수피해 최소화에도 그 역할을 다해왔다. 재작년 태풍 '불라벤' 등이 내습했을 때에도 댐 하류 하천수위를 최대 1.6m 줄이는 효과를 발휘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예측불허이며 가뭄과, 흥수빈발·심화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도 다가을 위기를 새롭게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혜를 모아야 한다. 물부족사태와 이상 가뭄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물 관리대책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식용수 공급원이야말로 지역사회와 경제적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축의금 받는 접수대는 칸막이로 좀 가리든지, 아니면 신부대기실처럼 접수대를 따로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인간지사에 대한 기본이 법은 지키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거기서 식권까지 나눠주는게 우리나라 예산장의 똑같은 풍경이다.

마음으로 축하를 해 주려 가서 혼주 뒤에 서 돈을 내밀고, 접수대에서는 즉시 봉투를 개봉해서 액수를 확인하고, 그것을 적은 뒤 식권을 나눠주는 모양새가 영 안좋다. 이건 마치 결혼식이 세금을 거두는 장면 같아 보이기에 혼주나 신랑이나 여간 민망한게 아닐까?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나니.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축의금 받는 접수대는 칸막이로 좀 가리든지, 아니면 신부대기실처럼 접수대를 따로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인간지사에 대한 기본이 법은 지키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경화·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 社說

## 챔피언스 필드 주변, 교통지옥 만들 셈인가

지역민의 열망을 안고 광주시 북구 임동의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지난 8일 개장했다. 그러나 곧 바로 심각한 교통 문제를 노출했다.

교통불편의 가장 큰 요인은 주차장의 태부족이다. 경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2만 7000명이나 되지만 주차 수용 대수는 고작 1116대뿐이다. 이는 야구장 좌석 수가 비슷한 문학 경기장(2만 6923석)과 잠실구장(2만 5500석)의 주차 능력 4559대와 2000대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다.

따라서 경기나 행사가 열리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차량 때문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리라는 우려는 이미 개장 전부터 제기되었다. 걱정은 현실로 다가왔다. 개장식 행사 때 애구장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앞 교차로에 20~30대의 승용차가 한데 엉켜 꼼짝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이다.

이미 본보는 협소한 주차 시설 때문에

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2013년 10월 29일 7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애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갖추려면 추가로 400여 원이 필요하다는 예산 타령으로 시간만 보내고 말았다.

주차장이 부족하면 신호체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이것도 엉망이다. 옛 광주 보훈회관과 옛 무등야구장·임동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신호 시간이 10~12초밖에 되기도 한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면적을 늘리고 경찰도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최첨단 야구장을 교통지옥에 가둬 두어서야 되겠는가.

## 논·밭두렁 소각 산불 2배나 늘어나다니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늘면서 서인명과 재산 피해가 따르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49분께 영광군 백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를 태웠으며, 7일 오후 담양군 대덕면과 보성군 문덕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2.2ha가 소실됐다.

앞서 지난달 오전 1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한 마을 빛산에서 불을 끄던 김모(여·82)씨가 연기로 질식돼 숨졌다. 하루 전인 23일에는 화순군 동복면 독상마을에서 사는 정모(여·90)씨가 산불을 끄다 벽을 당했으며, 이날 고흥군 과역면 한 마을 애산에 청각장애 4급인 전모(여·8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노인은 논·밭두렁을 태우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마저 불어 산으로 불길이 번지자